

2019 국별 진출전략

폴란드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소득증가 및 전자상거래 선호에 따른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	4
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첨단기술 집약산업 육성	4
다. 국방력 강화 및 방산 육성, 미군의 영구주둔 추진	5
라. 발전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및 에너지원 다변화 가속	5
마. EU 기금 기반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활발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가. 정치 환경	7
나. 경제 환경	9
다. 산업 환경	10
라. 정책·규제 환경	11
2. 시장 분석	13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3
나. 수출입	14
다. 투자진출	16
라. 공공조달·프로젝트	18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억제	20
가. 교역	20
나. 투자진출	22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4
III. 진출전략	25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5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6
3. 한국-폴란드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9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32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33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34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36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17년 4.6% 경제성장률에 이어 2018년에도 4%의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2019년에는 3%대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EU 기금 프로젝트 발주가 활발해짐에 따라 투자 또한 확대될 전망
- 경제호황으로 실업률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민간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급속한 임금인상의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2019년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인 경제성장세가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됨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백만 명	38.06	38.02	38.01	37.97	37.97	37.96	37.92
명목GDP	십억 달러	524.4	545.1	477.4	471.2	524.9	614.2	650.0
1인당 명목GDP	달러	13,777	14,337	12,560	12,411	13,823	16,180	17,130
실질성장률	%	1.4	3.3	3.8	2.9	4.6	4.1	3.5
실업률	%	10.3	9.0	7.5	6.2	5.3	4.5	4.3
소비자물가상승률	%	0.9	0.0	-0.9	-0.6	2.0	2.5	2.5
재정수지(GDP대비)	%	-3.3	-3.1	-2.6	-2.5	-3.1	-3.0	-3.0
총수출	십억 달러	205.1	220.1	199.2	203.8	231.0	249.1	264.6
(對韓 수출)	백만 달러	722	501	424	505	551	-	-
총수입	십억 달러	207.7	223.6	196.6	199.5	230.6	256.0	269.8
(對韓 수입)	백만 달러	3,001	3,384	2,624	2,659	2,859	-	-
무역수지	십억 달러	-2.6	-3.5	2.7	4.3	0.4	-	-
경상수지	백만 달러	-6,744	-11,444	-2,659	-2,458	602	-	-
환율(연평균)	PLN/USD	3.2	3.2	3.8	3.9	3.8	3.6	3.8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451	4,701	3,172	7,912	2,396	-	-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3,626	17,612	13,063	13,418	5,983	-	-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자료원: IMF, OECD, GTA, 폴 중앙통계청(GUS), 폴 중앙은행(NBP), IHS Markit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019년 폴란드는 경제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소비 진작과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 등으로 내수경기는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제조분야에서 산업 자동화, 로봇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ICT 융합 기술의 개발이 확대될 전망
- EU 기금 활용 프로그램의 구체화로 사회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도로·철도·항구·공항 분야의 투자 가속화 예정
- 폴란드 정부는 국방예산 확대를 계획해 군 현대화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군의 영구주둔 유치계획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

가. 소득증가 및 전자상거래 선호에 따른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

□ 견고한 경제성장 및 정부보조금 확대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 EU 가입 이후 견고한 경제성장세를 이어오며 따라 복지수준 향상,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웰빙 선호 등 독일 및 인근 선진국형 소비패턴을 따라가는 중
- 자녀수당(Family 500+), 학용품수당(300+) 등 정부보조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과 ICT 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선호 경향

-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에 따라 매월 첫째 주와 마지막 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일요일에 주유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상거래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ICT 기술 발달, 인터넷 보급률 증가, 모바일 기기 사용인구 증가, 다양한 결제방식 등장 등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판매자들도 옴니채널 전략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 가능하게 함

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첨단기술 집약산업 육성

□ 'Initiative for Polish Industry 4.0'을 통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촉진

- 정책의 주요 목표는 4차 산업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장 통합과 촉진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보 비대칭 현상 축소', '경제적 지식의 확산 및 촉진', '시장의 불완전성과 관련 법적구조 개선'을 목표로 함
- 특히 스마트 산업 육성을 위해 R&D 분야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고, 2020년까지 R&D 투자규모를 GDP의 2%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

- 동 정책에 따라 폴란드 내 제조공장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산업 전방위적 효율화를 통해 폴란드 1인당 GDP 수준을 EU 평균의 79%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

다. 국방력 강화 및 방산 육성, 미군의 영구주둔 추진

□ 2018년 현재 전체 GDP의 2% 수준인 국방예산을 2024년까지 2.5%로 증액 계획

-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 계획보다 35억 즈워티(약 9.4억 달러) 늘어난 440억 즈워티(약 118.7억 달러) 규모의 2019년 국방예산안 발표를 통해 방산분야 투자를 더욱 확대할 의지를 밝힘
- 국방 부문은 폴란드 정부의 핵심 전략 프로그램인 책임개발계획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 병력을 최대 13만 명까지 증원하고, 국영방산업체 PGZ를 통해 해외 선진 군사물자 및 기술 도입을 추진 중
- 세부적으로 2014~2022 폴란드 국방기술 현대화 프로그램(TMP)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외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방기술 국유화를 위해 해외 우수기업들과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폴란드 내 최초 미군기지 유치 및 미군의 영구주둔 추진

- 폴란드 대통령은 2018년 9월 18일 미국 백악관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폴란드 내 최초의 미군기지 설립 및 영구주둔을 희망한다고 밝힘
- 폴란드 정부는 미국과 국방관련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고, 군사훈련계약 등 미국의 무기 체계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

라. 발전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및 에너지원 다변화 가속

□ EU 탄소배출기준 부합을 위해 화력발전소 현대화 가속화

- 2017년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산업 배출 지침(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IED)의 이행원칙 중 하나로 지정된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규제를 도입하였고, 이에 2021년까지 역내 모든 석탄발전소는 EU의 탄소 배출기준에 부합시켜야 함
- 폴란드 내 석탄 발전은 전체 발전량 중 약 80%를 차지해 주요 전력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존 석탄발전소들이 노쇠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EU의 탄소배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가 다수 논의됨

□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에너지원 다변화 도모

- 높은 석탄에너지 발전비중의 부담감으로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천연가스는 주요 수입원이 러시아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효율 및 비용상의 문제가 존재

- 이에 따라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4,500MWe 규모의 원전 건설을 위해 2019년까지 지질 및 환경분석을 완료하고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력 손실률 감소를 위한 송배전 인프라 현대화 추진

- 폴란드는 지방의 배전 인프라 시설이 많이 열악하여 2018년 기준 송배전 손실률 6.3%를 기록
- 2027년까지 손실률을 5.0%까지 낮출 계획으로 점진적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전략과 함께 첨단 그리드를 구축할 것으로 보임

마. EU 기금 기반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활발

□ 2014~2020 EU 기금 최대 수혜국으로 주요 교통인프라 시설 프로젝트 박차

- 폴란드 내 다수의 고속도로, 철도, 항구, 내륙 수로 프로젝트가 2014~2020년 EU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폴란드 정부 및 지방정부는 EU 기금 활용을 위해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

□ 도로, 철도, 교량 프로젝트 다수 계획

- 현재 폴란드에는 약 1만 9,000km의 철도가 있으며, 2015~2023년 National Rail Programme에 따라 EU 기금 및 정부예산을 철도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철도 현대화, 일부 구간 최고속력 160km/h 이상으로 개선을 목표
- 또한 폴란드는 현재 고속도로와 국도를 포함하여 약 19,000km의 도로 인프라를 보유 중이며, 2018년 8월 기준 130km의 도로가 건설 중이고, 추가로 700km의 도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
- 2018년 5월 폴란드 정부는 Bridges+ 프로그램 발표를 통해 폴란드 내 22개의 교량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을 도입하여 통합 도로관리를 위한 구상 중

□ 중동부 유럽 허브공항 건설계획 구체화

- 쇼팽공항을 대체할 목적으로 바르샤바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Baranow 지역에 허브공항(Central Communication Port, CPK)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연간 4,500만 명 수용 규모의 허브공항 건설 계획과 함께, 동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및 철도 연결계획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극우 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EU와의 관계가 다소 악화되고 있음
- 폴란드는 2014~2020 EU 기금 최대 수혜국으로 동 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하여 기계, 자동차, 항공 등의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춰 산업의 자동화, 디지털화를 도모하고 있음
- 폴란드 정부는 책임개발전략 정책을 통해 폴란드 경제성장세를 지속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법 개정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가. 정치 환경

□ 우파 국수주의 정당 ‘법과정의당’이 정권 장악

- 2015년 치러진 대선과 총선에서 보수주의 정당 ‘법과정의당’이 승리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유경제주의와 친EU 연합을 지향하는 성향이 둔화되었고, 폴란드의 민주주의는 다소 퇴보하고 있다는 판단
- ‘시민연단(PO)’을 필두로 하는 야당은 2018년 10월 지방선거, 2019년 5월 유럽의회 의원 선거, 2019년 11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당의 독주를 막겠다는 의지
- 그러나 야당이 분열되어 있고 여당의 권력이 공고한 터라, 폴란드의 정세는 큰 변화 없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큼

□ EU와 폴란드 정부 사이 마찰 지속

- 폴란드의 난민수용 거부
 - EU 집행위원회는 EU에서 난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할당된 난민 수용을 거부한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2017년 12월 7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
 - 앞서 EU는 내전과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럽으로 난민이 몰려들자,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회원국별로 일정한 수를 할당해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결정했으나 이들 국가는 거부함

- 이에 폴란드 등 관련 국가는 EU의 이 같은 결정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ECJ에 제소했으나 패소
- EU 미세먼지 기준 초과
 - ECJ는 2018년 2월 22일 폴란드에서 지난 수년 동안 미세먼지 한계치가 초과해 공기질 관련 EU의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결
 - ECJ는 폴란드 정부가 지체 없이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폴란드는 EU의 부당한 제재라고 대응 중
- 바이알로비에자 원시림 벌목
 - EU 최고법원인 ECJ의 이브 보 법무감은 폴란드 정부가 유럽의 마지막 원시림인 바이알로비에자 원시림의 벌목을 허용한 결정은 EU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
 - 폴란드 정부는 나무좀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고 산불 위험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벌목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벌목 작업을 지속하였으나, 2018년 4월 17일 ECJ가 불법으로 최종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벌목이 중단됨
- 폴란드 사법개혁에 따른 민주주의 위협
 - 폴란드는 집권당인 '법과정의당' 주도로 2018년 7월부터 판사 선발권을 국가사법위원회(KRS)에 넘기고, 대법원 판사의 퇴임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도록 관련법을 개정함
 - KRS는 의회가 구성하는 기관인 데다, 새 법안은 대통령에게 대법관의 임기 연장권을 부여해 사실상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장악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9월 24일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폴란드를 ECJ에 제소하기로 함
- 폴란드 2021~2027 EU 기금 지원규모 축소
 - EU 집행위원회의 결속정책(cohesion policy) 운영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2014~2020 EU 기금과 비교해 2021~2027 기금의 동유럽 지원금은 300억 유로 삭감될 것으로 예상
 - 헝가리·체코·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에 투입될 자금이 각각 24% 줄어들고 폴란드도 23% 삭감될 예정이나,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그리스는 8% 확대,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5%와 6.4% 늘어난 자금 투입이 계획됨
 - 폴란드 정부는 지원금 삭감은 EU 내 지역 간 긴장을 더욱 가중할 징조라며 완전히 불공평하다고 비판

나. 경제 환경

□ 경제성장

- EU 가입 이후 플러스 경제성장 지속
 -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역내 수출증가, 꾸준한 외국인 투자유입, 건설 및 인프라 투자확대로 인한 내수경기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EU 회원국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EU 회원국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성장을 달성함
- 2019년 폴란드 경제성장률 3.7~3.8% 전망
 - 2018년 1~7월 동안 매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과 급격한 임금상승 추세로 민간소비가 활성화를 보이고 있음
 - 다만 물가상승 압박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건설 및 IT 부문의 성장이 위협받으면서 높은 경제상승률이 지속되긴 힘들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

- 고용증가에 힘입어 폴란드 실업률은 2016년 8월을 기점으로 한 자릿대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7월 기준 5.9%대의 최저 실업률을 기록
 - 국내 소비경제 향상, 폴란드 즈위티의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증가, 산업생산주문량 증가 등이 폴란드 산업 전반에서 고용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 생산가능 인구 감소
 - 2016년 기준 폴란드 출산율은 1.3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며, EU 가입 후 영국, 독일 등 선진국으로 이주가 확대돼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50년 폴란드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점차 고령사회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고 있으며, 2017년 퇴직연령을 기존의 67세에서 남성 65세, 여성 60세로 단축하여 생산가능 인구가 하락할 전망

□ 금리

- 내수경기 호조에 당분간 최저금리 유지 예상
 - 폴란드 중앙은행은 2015년 3월 기준금리를 1.5%까지 하향 조정해 사실상 최저금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현재까지도 지속 유지 중
 - 2017년부터 점진적 물가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 8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2.0%로 중앙은행(NBP)의 목표인 2.5%를 하회하고 있음

- 2019년에도 2% 초중반대 물가상승률이 예상되어 폴란드 중앙은행은 내수소비 진작, 낮은 실업률,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빠르게 상승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 산업 환경

□ 폴란드 산업구조

- 전통적 농업국가에서 벗어나 공업화에 주력한 후,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화 중
 - 자동차, IT, 전기전자, 항공, 기계 부문을 중점 육성
 - 2017년 기준 농업이 2.4%, 제조업이 40.2%, 서비스업이 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 추세임

□ 폴란드 주요 산업동향

- 소비재
 - 과거 일부 고소득층에게 한정적이었던 건강, 미용, 여가생활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빠른 속도로 변지고 있으며, 유기농식품이나 화장품, 미용, 레저 관련 소비재 시장 급성장
 - 초기 형성단계에 있는 폴란드 소비재 시장은 기저효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이 향후 서유럽 수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할 때 잠재력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 및 인터넷·모바일 환경을 발달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재 구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전력기자재
 - 2017년 기준 폴란드의 전체 전력 생산량은 170.0TWh 규모로 전 세계에서 25번째로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설비용량 41,183MW, 소비량 132.7TWh 수준
 - 폴란드는 유럽 총 전력 생산량 중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11.3%), 러시아(5.5%)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폴란드를 이어 체코가 2%의 생산규모를 보이고 있음
 - 폴란드 정부는 에너지 의존도 분산 및 대기오염에 대한 해결책으로 석탄 발전소의 현대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원전 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폴란드 전력생산 분야 다방면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력기자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항공산업
 - 폴란드 항공우주산업은 8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과학·학술 및 기술 센터를 중심으로 발전을 이어왔음. 특히 국가 체제 전환 후 국제 사업협력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발전을 더해옴

- 약 200개 이상의 관련업체가 활동 중으로 이들의 전체 연 매출은 13억 유로 규모, 관련 분야 종사자는 3만 명 이상, 전체 공장 중 80%가 폴란드 남동부의 4개 클러스터에 소재 중
- 대체로 농업용·훈련용 항공기나 헬리콥터, 글라이더, 기타 관련 부품 생산에 특화되어 있으며, 생산된 항공 제품의 90%는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 폴란드는 2020년까지 약 8,610억 유로의 EU 기금을 활용해 항공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국립연구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INNOLOT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 및 지식 이전활동 등에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 자동차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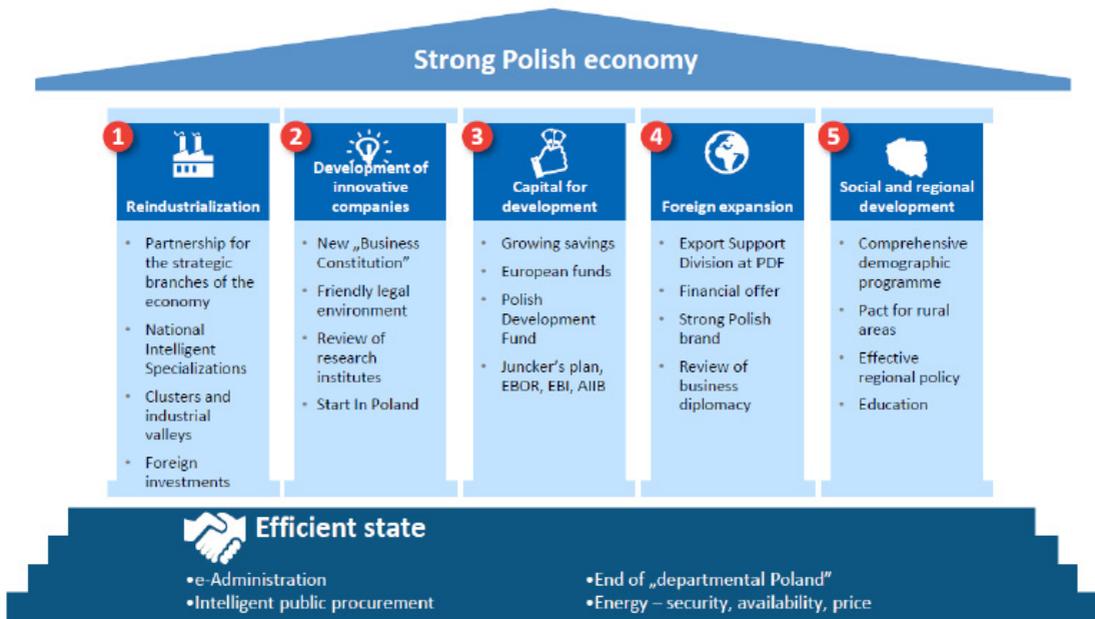
-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중요한 자동차 생산기지로 GM, 폴크스바겐, 피아트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도 1990년대 중반 대우 자동차의 진출로 시작해 2008년부터 체코 현대차, 슬로바키아 기아차 공장 지원을 위한 폴란드 남부지방으로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폴란드에서 제조된 승용차 및 경량 상용차의 98%는 해외로 수출돼 폴란드 경제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서유럽으로 수출되어 서유럽과의 국경 부근에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음
-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LG화학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업을 유치하기도 하였으며, 첨단 자동차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투자확대 등 다방면으로 노력 중

라. 정책·규제 환경

□ 책임개발전략(Strategy for Responsible Development)

- 국가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한 폴란드 신국가 발전 전략
- 책임개발전략은 재산업화, 혁신기업 개발, 개발자본 형성, 해외 확장, 지역사회 발전 등 다섯 가지 세부계획을 통해 강한 경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폴란드 정부는 이 전략으로 2020년까지 투자규모를 GDP의 25% 이상으로 확대, R&D 분야 지출을 GDP의 2%로 확대, 대기업 및 중견기업 2만 2,000개 이상으로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1인당 GDP를 EU 평균의 79%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목표

[폴란드 책임개발전략 세부계획]



자료원: 폴란드 투자개발부

□ **비즈니스 헌법**

- 기업들의 애로사항 개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체적인 기업법을 정비한 '비즈니스 헌법(Constitution for Business)'이 2018년 4월 30일 정식 발효됨
- 비즈니스 헌법은 '기업법',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경제활동법', '중소기업 옴부즈맨법', '개인사업체법'이 하나의 법전 형식을 갖춰 체계적으로 총망라된 기업활동법임
- 해당 법 제정으로 법에 명확히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기업은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료주의 만연과 더디고 복잡한 행정절차 등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경제특구지역 확대**

- 기존에는 제조업 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 등의 투자혜택을 받으려면 14개의 정해진 경제특구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야만 가능했음
- 폴란드 정부는 단순 제조업 투자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신기술, R&D 등의 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신투자정책을 수립하고 기존 14개 경제특구를 폴란드 전체 국토로 변경하는 정책을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 중
- 경제특구 투자 시 대기업에 비해 재정 충원 애로사항이 많았던 중소기업들이 투자금액을 대폭 인하받게 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월하게 경제특구에 투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

- 2018년 3월 1일부터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이 전면 시행되어, 초기 시행단계인 2018년에는 매월 첫째 주와 마지막 주 일요일에만 상점의 영업이 가능하고, 2019년에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만 영업 가능하며, 2020년에는 모든 일요일에 영업이 금지됨
-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은 폴란드 전국노조연합의 청원으로 추진되어 근로자들에게 가족과 함께 하는 일요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집권 여당과 주교회의의 적극적인 지지로 국회를 통과함
- 동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슈퍼마켓, 편의점, 쇼핑몰, 아울렛 등이며, 예외 대상은 영세 식료품 가게, 주유소, 기차역 및 공항 내 상점, 제과점, 꽃가게, 약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임

2. 시장 분석

- 폴란드는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유럽과 CIS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임
-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 보유와 함께 2014~2020년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많은 프로젝트 발주 및 정부 투자지원 정책이 이어지고 있음
- 폴란드의 교역은 EU 회원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나, 최근 중국 등 비EU국과 교역도 늘어나는 추세임
- 기존의 14곳이었던 경제특구를 국가 전체로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투자는 1990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유럽과 CIS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 폴란드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 유럽과 CIS의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서유럽으로 활발하게 수출됨과 동시에, 서유럽에서 수입된 완제품 및 원부자재가 폴란드를 통해 인접 국가들로 재수출되고 있어 산업재 생산과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

□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 보유

- 폴란드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3,800만 명으로 EU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 중동부 유럽에서는 가장 큰 규모임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폴란드 경제성장률은 1.6%를 기록해 EU에서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하였으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5.0%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2017년 경제성장률은 4.6%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은 4%대 성장이 예상되어 EU 회원국 예상평균인 2.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나. 수출입

□ 폴란드 수출입동향

- 전통적으로 EU 역내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몇 년간 중국, 미국, 인도, 호주 등 비유럽 국가들과의 교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
- 특히, 독일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상당히 큰 편으로 2018년 1~6월 기준으로 전체 교역규모에서 수출 28.01%, 수입 27.36%의 비중을 차지
- 총 수출입규모는 2008~2017년간 연평균 5.22%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24.68%), 유로존 위기로 교역규모가 감소했던 2012년(-3.67%), 그리고 2015년(-10.79%)을 제외하고 꾸준한 상승추세
- 2018년 1~6월 총 수출입규모는 2,635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9.75%의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전체 총 수출입규모는 4,6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44% 증가함

[폴란드의 국가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2018. 1~6)
		2016	2017	2018. 1~6	
	전체	203,834	231,006	131,042	100
1	독일	55,819	63,320	36,710	28.01
2	체코	13,398	14,794	8,384	6.40
3	영국	13,554	14,693	7,899	6.03
4	프랑스	11,055	12,903	7,546	5.76
5	이탈리아	9,712	11,314	6,170	4.71
6	네덜란드	9,120	10,128	5,891	4.50
7	러시아	5,761	7,030	3,828	2.92
8	스웨덴	5,908	6,396	3,724	2.84
9	미국	4,786	6,217	3,573	2.73
10	스페인	5,495	6,228	3,573	2.73
23	중국	1,902	2,334	1,109	0.85
41	일본	587	566	319	0.24
43	대한민국	505	551	297	0.23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폴란드의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2018. 1~6)
		2016	2017	2018. 1~6	
	전체	199,523	230,596	132,470	100%
1	독일	56,192	64,206	36,244	27.36%
2	중국	15,572	18,465	10,087	7.61%
3	러시아	11,373	14,686	9,196	6.94%
4	네덜란드	11,936	13,770	7,548	5.70%
5	이탈리아	10,963	12,233	6,786	5.12%
6	프랑스	8,515	9,599	5,522	4.17%
7	체코	8,118	9,270	5,299	4.00%
8	벨기에	7,296	8,476	5,000	3.77%
9	영국	5,707	6,346	3,338	2.52%
10	스페인	4,666	5,427	3,212	2.42%
16	대한민국	2,659	2,859	1,684	1.27%
28	일본	1,209	1,468	736	0.56%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폴란드 주요 수출입품목

- 2018년 1~6월 기준 주요 수출입품목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 품목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류, 철도·차량 부품, 전자제품의 비중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
- 또한 폴란드는 가구산업이 발달하여 전 세계에서는 중국, 독일, 이탈리아, 베트남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출 판매규모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수입품목 중 폴란드는 비산유국으로 원유 등 연료 수입이 전체의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와 의료시설 현대화 정책으로 의료용품 및 의료·측정기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폴란드의 주요 수출입품목]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HS코드	금액 (백만 달러)	비중	HS코드	금액 (백만 달러)	비중
전체		131,042	100%		132,470	100%
1	84: 기계류	17,503	13.36%	84: 기계류	15,868	11.95%
2	87: 철도·차량 부품	15,883	12.12%	85: 전자제품	14,672	11.08%
3	85: 전자제품	13,623	10.40%	87: 철도·차량 부품	13,833	10.44%
4	94: 가구류	7,739	5.91%	27: 광물성 연료	10,750	8.11%
5	39: 플라스틱류	6,558	5.00%	39: 플라스틱류	8,030	6.06%
6	73: 철강제품	4,403	3.36%	72: 철강	5,532	4.18%
7	27: 광물성 연료	3,429	2.62%	30: 의료용품	3,730	2.82%
8	40: 고무류	3,055	2.33%	73: 철강제품	3,245	2.45%
9	02: 육류	2,997	2.29%	90: 의료·측정기기	2,836	2.14%
10	44: 목재류	2,923	2.23%	48: 제지류	2,736	2.07%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진입장벽

-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 EU에서 정한 수출입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입이 자유로워 무기류, 폭발물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 수출입 규제가 없음
- EU와 여타 경제권역의 FTA 협정으로 많은 품목군에서 관세 즉시철폐 및 단계적 철폐로 비관세 혜택을 받는 곳이 많으나, 기계, 전기전자, 건축자재, 완구 등에 대한 CE 마크 획득 등 EU 공동의 인증제도를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함

다. 투자진출

□ 폴란드 투자 진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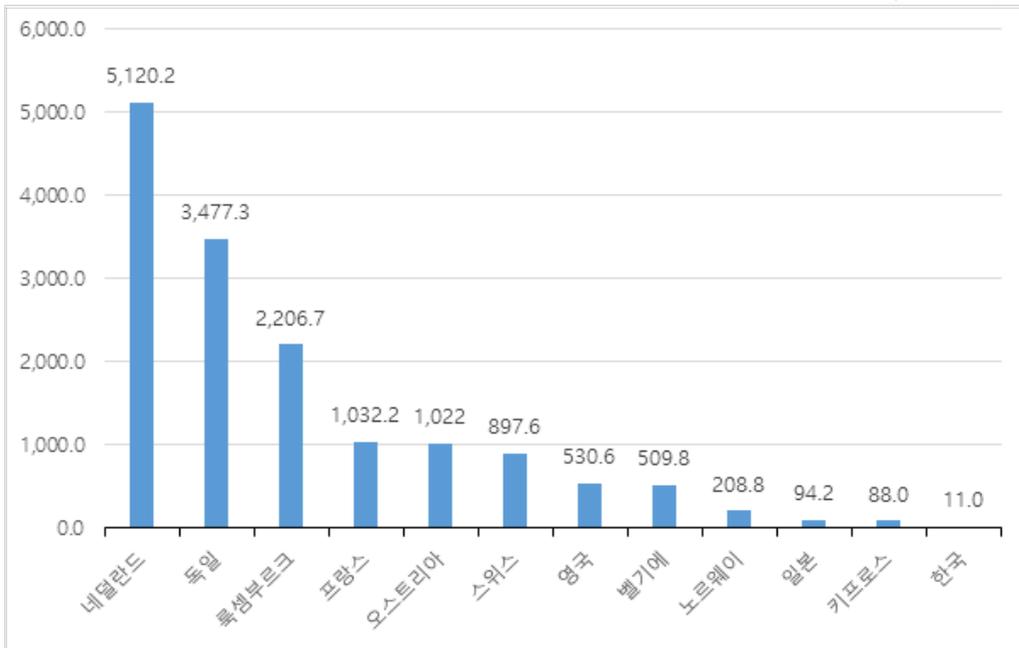
-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동서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안정적인 경제상황,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우호적인 투자환경으로 인해 중동부 유럽 최대의 외국인 투자처로 자리잡음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 기준 1990년 폴란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누적액은 1.09억 달러였으나, 10년 뒤인 2000년에는 342억 달러로 300% 이상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누적액이 1,975억 달러를 기록해 중동부 유럽 최대의 외국인 투자 유치국으로 성장함
- 폴란드의 FDI는 유럽 내 총 해외투자 유입 비중에서 8%를 차지하며, 2017년 EY의 유럽 매력도 조사(European Attractiveness Survey) 결과에 따르면 폴란드는 외국인직접투자 선호지역으로 유럽 전체 국가 중 6위, 중동부 유럽 국가 중 1위를 차지
- 특히 값싼 노동력과 발달된 연구기관, 안정적인 정세, 큰 규모의 내수시장, 여타 유럽 시장 진입의 용이성 등이 높은 투자유치의 원인으로 꼽힘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LG화학의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 투자 등에 힘입어 2017년 對폴란드 투자국 중 한국이 약 19억 유로를 투자해 1위로 부상, 그다음으로 중국 13.7억 유로, 독일 8.95억 유로 등이 뒤를 이음
- 2016년까지 폴란드의 FDI 누적 투자액 추정치는 1,964억 달러이며, 이 중 네덜란드가 385억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뒤로는 독일 336억 달러, 룩셈부르크 240억 달러 순

[2016년 기준 對폴란드 국가별 누적 FDI 금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폴란드 중앙통계청

□ 투자진출 진입장벽

- 복잡하고 불투명한 법률 및 행정 처리로 비즈니스 비용 증가
 - 폴란드 세법 및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세무관련 행정 처리가 늦고 부정확하여 외국기업의 현지 기업활동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
 - 특히, 경제특구 투자진출에도 불구하고 환경평가 및 각종 인허가 처리도 수개월이 소요되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함
-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의 접근성 차단으로 사업 기회 상실
 - 폴란드 정부의 전자정부 수준이 낮고, 입찰공고 등 주요 사업 정보 및 절차가 폴란드어로 되어 있어, 언어 장벽이 기업 경영활동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
- 근로자 중심의 노동법으로 인해 현지 인력관리가 어려움 존재
 - 폴란드 노동법은 노동자 보호에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노동법 적용으로 인해 현지 진출기업의 현지 인사관리에 애로가 많음
 - 이로 인해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해고 시에도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며, 또한 해고 제한 사유를 악용하여 병가를 내거나 해고 통지서 서명을 거부하는 등 외국기업의 현지 인력관리에 어려움 존재

라. 공공조달·프로젝트

□ 폴란드 공공조달·프로젝트 시장동향

- 2017년 기준 폴란드 내 입찰공고 건수는 총 1만 300건으로 2016년 7만 9,199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전체 조달규모는 총 212억 유로 규모로 전년 138억 유로 대비 74억 유로 상승함
- 주요 조달분야는 건축·건설이 약 75억 유로로 전체 중 35.21%를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의료기기 13.15%, 환경처리 서비스 5.75%, 농업·산림·화훼·양봉 서비스 5.22% 등으로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폴란드의 CPV별 조달규모]

순위	CPV (Common Procurement Vocabulary)	금액(백만 유로)	비중
전체		21,165	100%
1	45: 건축·건설	7,453	35.21%
2	33: 의료기기	2,782	13.15%
3	90: 환경처리 서비스	1,218	5.75%
4	77: 농업·산림·화훼·양봉 서비스	1,105	5.22%
5	09: 에너지, 석유제품	1,050	4.96%
6	34: 운송장비 및 부품	1,035	4.89%
7	60: 운송 서비스	602	2.85%
8	50: 유지보수 서비스	547	2.59%
9	66: 재무·보험 서비스	541	2.56%
10	79: 법률·마케팅·컨설팅·채용 등 비즈니스 서비스	526	2.48%

자료원: Opentender Po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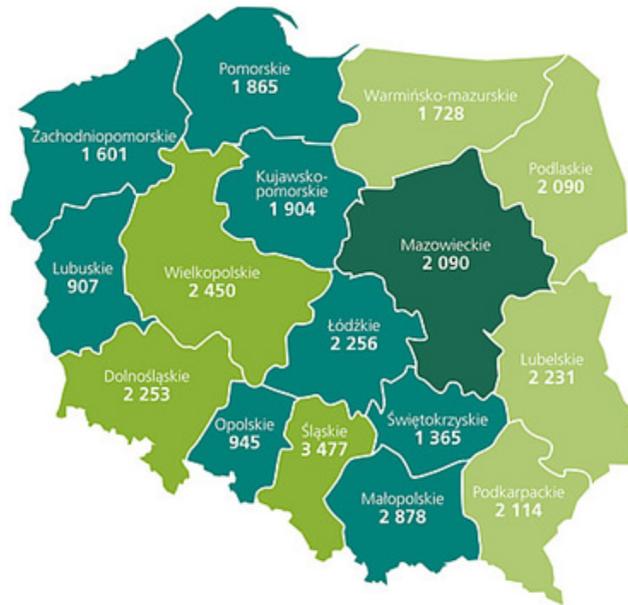
- 폴란드는 2014~2020 EU 기금 최대 수혜국으로 전체 기금 3,518억 유로 중 775억 유로를 배정받아 각종 사회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를 계획함
- EU 기금은 운용 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 OP)에 따라 사용되며, 동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저탄소 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친비즈니스 환경 조성, 폴란드 시민 생활여건 개선 등임

[폴란드의 EU 기금 운용 프로그램 세부내용]

프로그램	내용
16개 주별 지역 프로그램	- 각 지역별 ICT, 환경, 에너지, 교통 인프라 개발
인프라 및 환경	-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저탄소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및 도로·철도 인프라 구축 주력
지능형 개발	- 혁신 경제(Innovative Economy) 프로그램의 연속으로, R&D 분야 지원을 통한 폴란드 경쟁력 제고 및 혁신적 발전 도모 - 중소기업, 연구기관, 산업 클러스터 등 지원 중심
지식·교육·성장	- 인적 자본(Human Capital) 프로그램에 이어 고등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경쟁력 제고
디지털 폴란드	-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전자정부 구현, 지방·중앙정부와 연계한 전자 행정망 구축 등에 투자 예정
동부지역 개발	- 상대적으로 개발수준이 낮고 소득수준도 낮은 폴란드 동부 5개 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 동부 폴란드 지역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지역 내 연구개발, 소재기업 국제화 지원, 교통 인프라 개발 등을 포함
기술 지원	- EU 기금 운용을 위한 행정지원 프로그램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16개 주별 EU 기금 배정 현황]



자료원: Rodl & Partner

□ 외국기업의 공공조달·프로젝트 수주 동향

- 외국기업의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2015년 40억 달러로 전체 공공조달 규모 중 18%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14억 달러로 8% 점유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함
- 외국기업의 진출은 주로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공공조달법 개정 및 공공부문 투자 세부 활용계획 발표 전에는 대형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주춤하면서 진출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다시 외국기업의 진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기존에는 입찰을 수주했던 외국기업 중 50% 이상이 독일 기업이었던 반면, 2016년에는 아일랜드 20%, 영국 17%, 독일 16% 순으로 집계되었는데, 공공조달법 개정 이후 가격 이외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국가의 중소기업들에 수주 기회가 확대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임

□ 공공조달·프로젝트 시장 진입장벽

- 보수우파 성향의 현 정부가 자국기업들이 입찰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외국기업에는 불리한 상황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은 폴란드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입찰요건은 보통 영어 이외의 기타 외국어로 공시되지 않음
- 위임장에 대한 특이요건, 불필요한 구비 문서(예: 형사범죄 기록 등)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컨소시엄의 구성 변화를 불허하며 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하나가 부도 혹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컨소시엄에 영향을 미침

- 모든 문서는 입찰 응찰일과 같은 날짜에 제출되어야 하고 누락된 문서 보완에 대한 기한이 촉박하며, 이의신청 제기기한이 짧아 낙찰된 계약자는 이의 제기를 통보받고 3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야 함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가. 교역

□ 한-폴 무역협정 현황

-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 2010년 한-EU FTA를 정식 서명한 이래 EU는 2015년 12월부터 수입액 기준 모든 對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였고, 한국 또한 對EU 수입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함

□ 對폴란드 수출입 동향

- 2018년 1~6월 기준 한국의 對폴란드 수출액은 총 16.8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44%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총 2.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3% 증가함
- 한국의 對폴란드 교역은 수입보다 수출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폴란드의 시장경제 개방 이후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 2018년 1~6월 기준 폴란드는 한국의 무역 흑자국 순위 13위로, 유럽 국가 중 노르웨이(10위), 슬로바키아(12위)에 이어 세 번째

[對폴란드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1~6
수출 (증감률)	3,384 (12.78)	2,624 (-22.46)	2,659 (1.34)	2,859 (7.51)	1,684 (22.44)
수입 (증감률)	501 (-30.56)	424 (-15.50)	505 (19.06)	551 (9.25)	297 (9.43)
무역수지	2,883	2,200	2,515	2,308	1,386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한국과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여 전자제품 및 기계류의 교역이 활발하고 동 품목의 거래규모는 전체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 對폴란드 수입은 전체 규모가 작아 기저효과에 따른 증감률 변동이 크며, 한국 내 폴란드 도자제품 인기에 따라 동 품목의 수입규모가 큰 것이 특징

[對폴란드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HS코드	금액	비중	HS코드	금액	비중
전체		1,684	100		297	100
1	85: 전자제품	484	28.77	85: 전자제품	57	19.06
2	84: 기계류	231	13.71	84: 기계류	34	11.55
3	87: 철도·차량 부품	221	13.10	69: 도자제품	29	9.85
4	39: 플라스틱류	182	10.84	71: 진주·귀금속	26	8.74
5	90: 의료·측정기기	140	8.31	82: 비금속 공구·도구	19	6.46
6	72: 철강	64	3.81	90: 의료·측정기기	17	5.69
7	29: 유기화학품	54	3.23	87: 철도·차량 부품	14	4.54
8	93: 무기류	54	3.20	39: 플라스틱류	10	3.31
9	73: 철강제품	41	2.44	11: 제분공업 생산품	9	2.90
10	40: 고무류	40	2.39	22: 음료·주류·식초	8	2.76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우리 기업 수출 성공사례

□ 수출 사례 분석: 전시회부터 지사화 사업까지 몸으로 뛰어 시장을 개척한 C사

○ 지사화 서비스로 신규 수요 창출 도모

- C사는 고강도 벽돌 및 블록 생산용 철받침(파레트)을 생산하는 회사로 폴란드에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스틸 파레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바르샤바 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가입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벽돌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연간 6,000만 평방미터의 벽돌을 생산 중으로 나무/플라스틱으로 된 파레트를 주로 사용(90~95%), 기존 제품과 스틸 파레트의 가격 격차가 매우 크고(30~50% 저렴) 스틸 파레트에 사용에 대한 바이어들의 인지도 역시 매우 낮은 상황에서 지사화 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폴란드 바이어들은 나무 혹은 플라스틱으로 싸고 쉽게 만들어 쓸 수 있는 블록용 파레트를 굳이 비싼 비용을 주고 철제로 만들어 쓸 이유가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으며 스틸 파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폴란드 내 스틸 파레트 공급업체들이 있어 시장 진입여건이 매우 불리했던 상황이었다.

○ 품질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수출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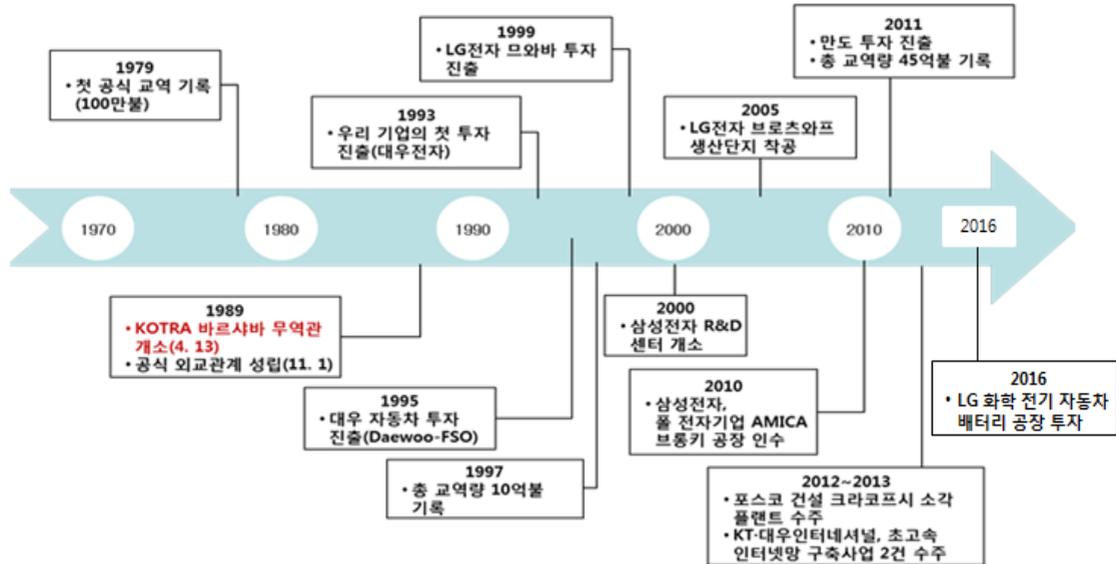
-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은 C사의 출장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지 잠재 바이어들을 방문하며 시장개척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가격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의 중심에 서있었다. 벽돌 생산라인에 단가가 높은 스틸 파레트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 대량 주문(20만~80만 달러)이 불가피해 바이어들이 최종 결정에 매우 신중하였다. C사와 바르샤바 무역관은 철제 팔레트를 선택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 5~10년간 투자수익률을 비교 분석해 잠재 바이어를 대상으로 긴 프레젠테이션과 설득과정을 거쳤다. 폴란드인들은 대체로 미래의 약속보다 현재 눈앞에 놓인 실체를 더 중시하는 근시안적인 경제관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 과정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사와 바르샤바 무역관은 관심을 보인 바이어들에게 샘플을 제공해 경쟁사 제품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스틸 파레트 사용이 건축용 블록의 품질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납득시켰다. 그 결과 폴란드 회사의 신규 라인 건설과 관련해 85만 6,757 달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콘크리트 벽돌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2019년도 또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 내 공장에서 사용되던 나무 파레트가 철제 파레트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바이어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C사의 성공요인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마케팅 자세다. 또한 폴란드 최대 건축전시회인 BUDMA에 부스를 마련해 잠재 바이어를 직접 만나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에 있다. 제품의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샘플에 대한 제약이 있어 전시회를 활용해 바이어를 발굴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 특히 폴란드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언어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동 전시회 기간에 바르샤바 무역관이 밀착 지원해 발생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나. 투자진출

□ 우리 기업 투자 진출동향

- 유럽과 CIS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우리 기업의 폴란드 투자진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LG화학 배터리 공장 투자 후 자동차 관련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

[한국기업의 對폴란드 투자진출 연표]



- 1993년대 대우전자의 진출로 본격화된 한국의 對폴란드 투자는 1995년 대우자동차의 투자와 함께 여러 협력업체가 진출하면서 급격히 늘기 시작,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로 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
- 2008년부터 체코 및 슬로바키아 소재 현대기아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남부지방에 자동차 분야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어졌고, LG 클러스터 형성, 삼성전자의 아미카 공장 인수 등으로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자동차 및 전자제품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6년 LG화학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투자에 따른 자동차부품 관련 협력업체의 동반진출과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중동부 유럽 및 CIS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
- 2018년 6월 기준 총 투자 누적액은 약 19.49억 달러로, 총 224개 사가 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형태로 폴란드에 투자 진출함

[폴란드 직접투자 동향]

(단위: 개 사, 천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1~6	누계
신규법인	8	10	21	12	14	224
투자금액	54,962	39,104	54,369	200,024	179,516	1,948,991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투자기업 지역별 분포도]



□ 우리 기업 투자진출 성공사례

□ 투자진출 사례분석: KOTRA, 현지 행정기관, 시공사, 현지 컨설팅사와 협업을 통해 조기 공장설립 및 안착에 성공한 S사

○ 유럽 생산거점 마련, '실제상황'

- 광 픽업 렌즈 생산기술을 보유한 S사는 활발한 해외 진출을 진행하여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유럽 진출에 기대를 품게 된 것은 2015년 중순 슬로바키아에 있는 H사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이 계기였다. 제품 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해 슬로바키아 인접국인 폴란드에 자동차 램프 생산 투자를 결정한 S사는 2015년 11월 말, 폴란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 한투센터)가 있는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문을 두드렸다.
- 폴란드 자동차 부품 시장에 관한 정보와 공장 용지를 구하기 위해 바르샤바 무역관 내 한투센터 직원과 폴란드 카토비체 경제특구청을 방문한 S사 임원진은, 경제특구청 사장과 토지가격을 포함한 기타 중요 투자조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KOTRA 한투센터 직원의 통역으로 소통의 불편함 없이 깊이 있는 협의를 할 수 있었다.

○ 예측 불허의 해외시장 환경

- 폴란드 경제특구청과의 미팅 이후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KOTRA 한투센터는 지역별 투자인센티브, 지방세 감면 여부, 인력수급 상황, 지역별 인프라 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S사에 가장 적합한 카토비체 경제특구 소속 투자 후보지 세 군대를 추천하고, 토지 매입에 관한 자료도 전달하였다.
- KOTRA가 제공한 정확한 현지 상황 분석정보와 기타 풍부한 자료를 검토한 S사는 2016년 1월 중순 슬로바키아 거래처까지 교통이 가장 용이하고 인력 수급이 대체로 원활한 카토비체 경제특구 소속 조리 지역에 약 54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 2016년 2월 사업계획서와 경제특구 토지매입 의향서를 카토비체 경제특구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약 2개월 동안 S사는 폴란드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 모든 게 원만히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실은 문제가 전혀 없진 않았다. 주고객사인 H사 측에 생산품을 납품해야 하는 기일이 2017년 4월 초로 정해져 있어 남은 기간은 10개월 남짓에 불과했다. 관료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폴란드에서 환경평가, 건축평가 등의 행정절차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모를 일이었다. 통상적으로 현지 공장설립(행정절차, 공장건축)에는 약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므로, 폴란드 경제특구청조차 '2017년 2월까지 공장 건축 완료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 KOTRA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 문제 해결을 위해 KOTRA 한투센터는 카토비체 경제특구청 및 조리시 측과 지속적인 미팅, 수십 번의 전화 통화로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고, 공장 설립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한투센터의 지원 덕분에 행정절차는 기대 이상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계획대로 2017년 2월 말, '건축 기간 10개월'이라는 이례적 기록을 세우며 S사는 공장 건축과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했고, 차질 없이 납품기일을 맞추면서 유럽 시장 진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한국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산업기반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기술 프로젝트 공동 개발

- 그동안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협력은 한국기업이 폴란드를 유럽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폴란드의 우수한 생산시설과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고 한국기업의 IT, 전기차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양국이 미래 신산업 분야인 AI, 빅데이터, 전기차, 드론 등 혁신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및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가능
- 이를 위해 폴란드에 기 진출한 삼성전자 R&D 센터, LG화학과 폴란드의 연구소, 대학이 EU 기금을 활용한 공동 기술개발 등 대규모 경제 협력사업 추진 가능
- 이에 기술 세미나, 전기차 분야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항공분야 신기술 개발 및 상용 프로젝트 공동 추진사업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

□ 양국 간 공동 R&D를 통한 제3국 신시장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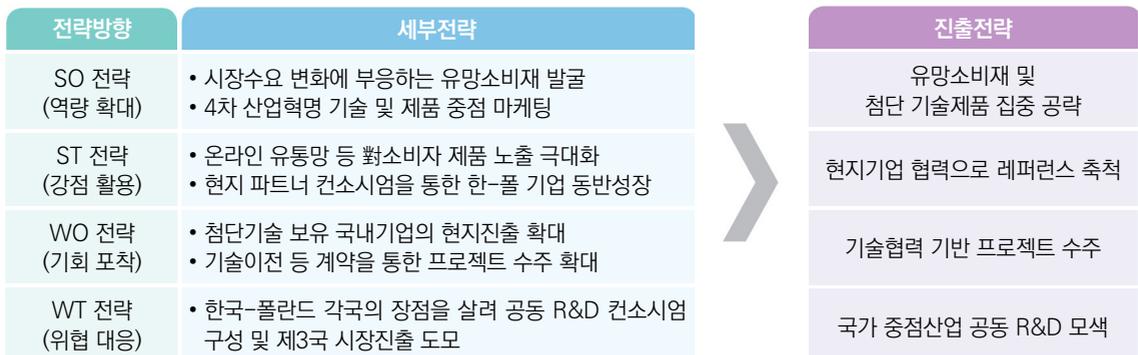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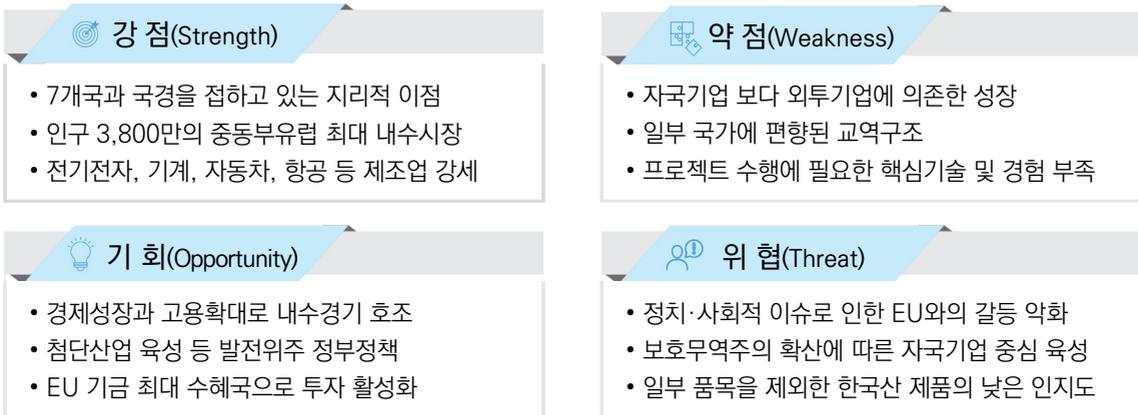
- 기존 한국과 폴란드 간 경제협력은 상품교역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폴란드 투자진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협력방안 필요성 대두
- 한국의 첨단기술 및 프리미엄 제품과 폴란드의 생산능력을 결합한 공동 R&D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제3국 시장 진출 도모 및 한-폴 기업 간 협력관계 재정립 타진 기회

III 진출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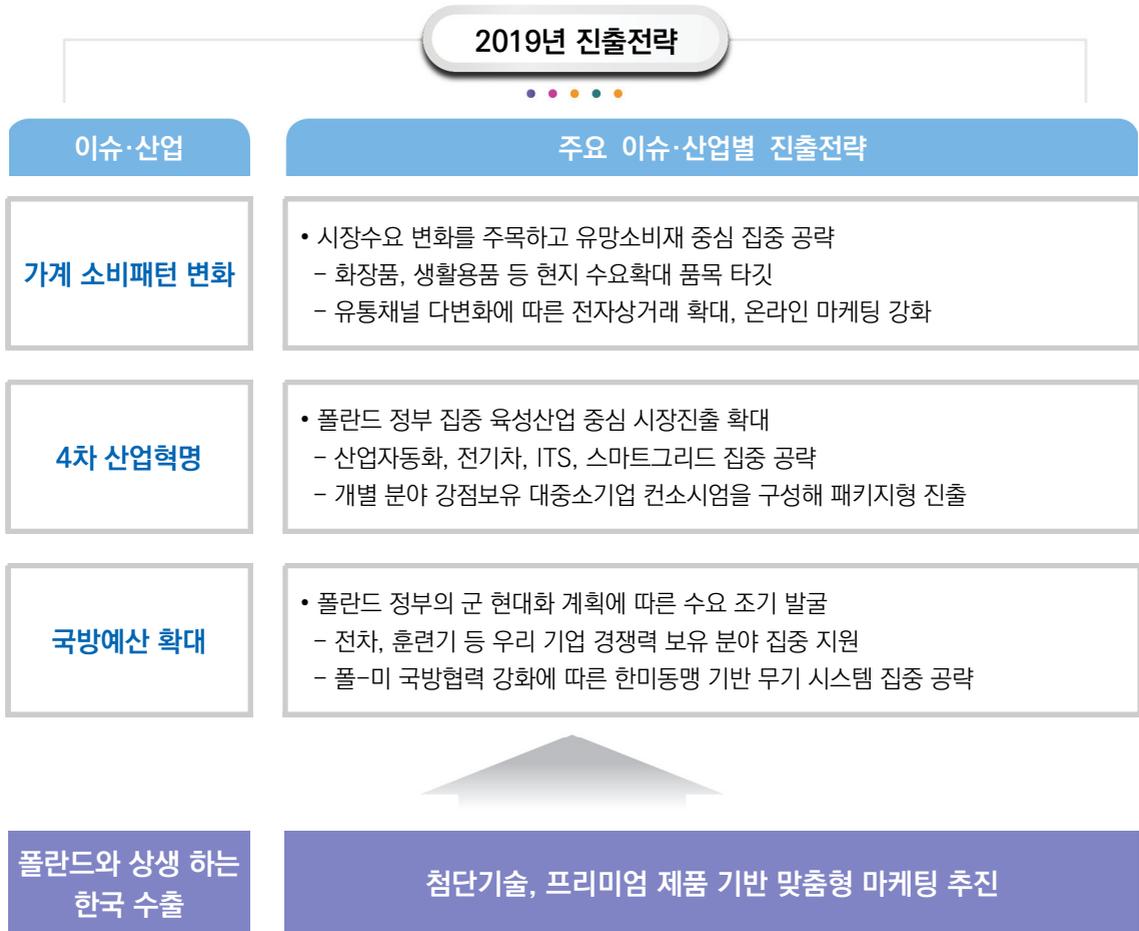
-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유망소비재 발굴과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한 공략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지능형 시스템 및 첨단기술 제품에 주력
- 국방예산 확대와 군현대화 정책을 통한 해외 선진방산기술 수요에 선제 대응
- 에너지 분야 기술력과 해외 우수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파트너십 구축 및 프로젝트 수주 기회 확대
- R&D 협력 등을 통한 미래시장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폴란드 지역 SWOT 분석]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가. 가계 소비패턴 변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견고한 경제성장 및 정부보조금 확대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 자녀수당(500+), 학용품수당(300+), 어머니연금 등 프로그램 시행 이후 민간소비 확대
 - 2018년 월 최저임금 전년 대비 5% 인상, 2019년에는 7.1% 인상 예정
 - 폴란드 실업률 2018년 7월 기준 5.9%까지 하락하며 역대 최저 실업률 갱신 중
-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 및 ICT 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선호 경향
 - 2019년 월 1회 일요일 상거래 가능, 2020년 모든 일요일 상거래 금지로 쇼핑물 방문빈도 축소
 - 인터넷 인프라 발전 및 모바일 사용 확대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시장 및 소비자 특성 파악, 수출 직결이 가능한 소비재 시장 주목 필요
 - 소득수준 향상으로 과거 저가제품을 선호하던 소비패턴이 점차 중고가 위주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 중임
 - 특히 사치재 및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의류, 미용, 애견용품 등과 관련한 프리미엄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
-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 및 관련제품 수요도 함께 증가
 - 화장품 구매에도 건강에 좋은 천연성분 화장품이나 피부보호와 노화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 급증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건강, 미용, 여가생활 관련 소비재의 품질, 성능, 디자인으로 차별화
 - 우수 디자인 아이디어 상품이나 친환경·기능성 제품임을 강조하고 미국 및 서유럽 제품 대비 합리적 가격을 어필하여 소비자층 공략 필요
- 기능성 화장품, 색조 화장품, 우수 디자인 생활용품, 육아용품 등 유망

나. 4차 산업혁명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제조업 강국인 폴란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 첨단 제조산업에서도 강국으로 남길 희망
 - 폴란드는 2016년 기준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설치 수가 32대로, 인근국인 슬로바키아 135대, 체코 101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
 - 전 세계 평균 74대 및 유럽 평균 99대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로 폴란드 정부는 산업 자동화를 위해 투자 확대 중
- 승용차 및 경량 상용차 총 생산량의 98%를 서유럽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대상국 내 수요 부응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기차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에 주력
 -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기업의 육성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업 유치를 통해 전기자동차 제조 및 연구개발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제조공장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산업 전방위적 첨단화 도모
 - 제조강국인 폴란드는 제조공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에도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진출 효과에 힘입어 한국의 첨단 자동차부품 등 강점을 부각해 집중 공략
 - LG화학 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따라 한국은 2017년 기준 對폴란드 투자국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여 친한국기업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이외 전기자동차 부품 분야의 성공 가능성도 높음
 - 각 산업의 분야별 강점을 보유한 대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패키지형 상품 및 서비스 제안으로 진출 확대

다. 국방예산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폴란드 정부의 군 현대화 및 군사력 확장을 위해 지출규모 확대 예정
 - 2018년 GDP의 2% 수준인 국방예산을 2024년까지 GDP의 2.5% 수준으로 점진 확대 계획
 - 2014~2022 폴란드 국방기술 현대화 프로그램(TMP)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외 첨단 무기 및 기술 도입
 - 2018년 현재 폴란드 군병력은 육군 57,000명, 공군 17,500명, 해군 8,500명, 특수부대 2,500명, 영토방위군 10,000명, 예비군 35,000명 규모이며 향후 최대 13만 명까지 증원 계획
- 국방기술 국유화를 위해 해외 우수기업들과 기술협약 체결 중
 - 제26회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서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훈련 계약 2건 체결
 - 2018년 8월 폴란드-호주 양국 국방장관은 해군 군사력 강화를 위해 전함 구매 및 군사훈련 협업방안 논의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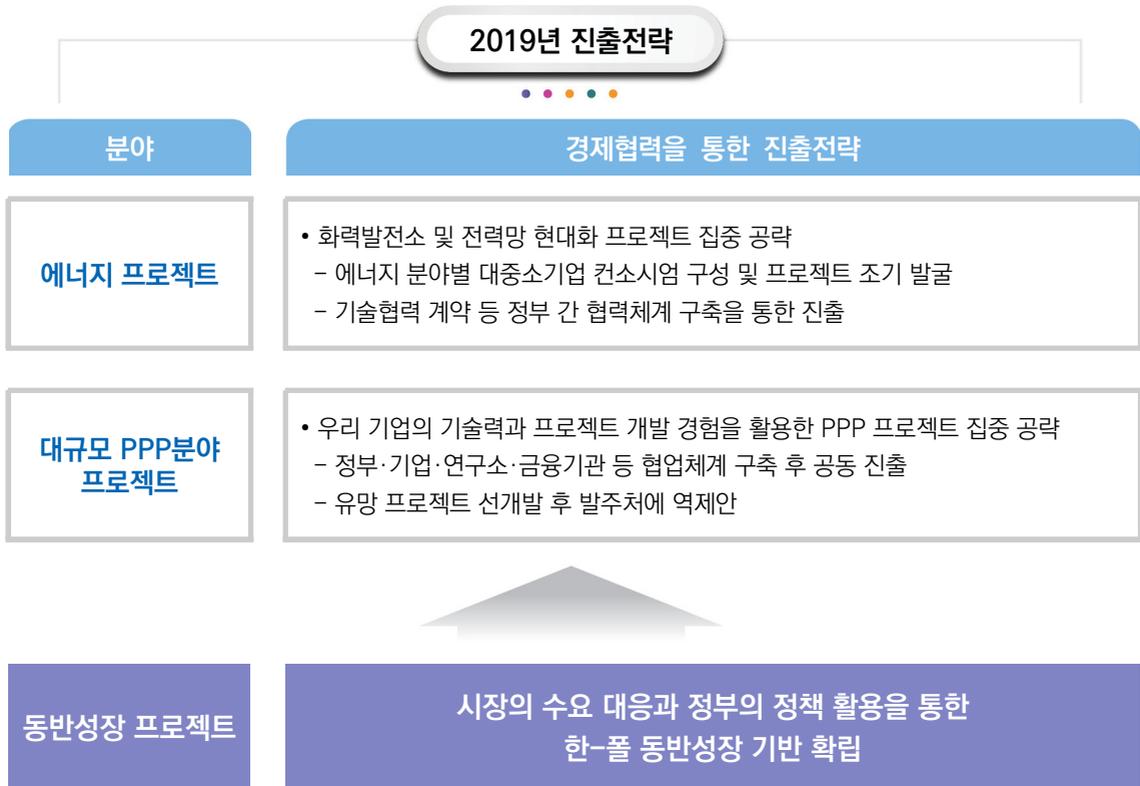
- 폴란드 정부의 국방예산 지출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현대식 무기 시스템 도입 계획에 주목 필요
 -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육해공군 전 분야에 걸쳐 미사일, 전차, 자주포, 군함, 훈련기, 군사훈련 시스템 등 다방면 계약 체결 및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예산규모 확대와 함께 해외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빠른 움직임
 - 해외의 선진 방산업체들과 무기 및 군사시스템 협력을 위해 폴란드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우수기술의 폴란드 국유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국의 해외수출 레퍼런스를 활용해 기술력 및 경험을 중심으로 공략
 - 우리나라는 2014년과 2016년에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Z와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어 향후 우리 국방기술 중 강점이 있는 전차, 훈련기 등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폴란드 내 최초 미군부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향후 미국 군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한미동맹의 경험이 바탕이 된 미군 협력 군 시스템 분야가 가능성이 높음

3. 한국-폴란드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에너지 프로젝트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7년 기준 폴란드 전력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25번째로 많은 규모
 - 화력발전소 중심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하여 환경 문제 및 효율성 이슈 존재
 - 화력발전소에 집중된 발전 비중을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해 분산할 계획
-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화력발전을 대체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방안 논의 활발
 -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로의 수입이 대부분으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되어 미국 등 수입국 다변화 중
 - 신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용 및 효율성 문제 여전히 존재
 - 폴란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여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부응 노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EU 기준 충족을 위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발주 활발
 - 폴란드 내 석탄 발전이 전체 발전량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쇠하여 효율성 저하
 - 2018년 기준 송배전 손실률 6.3%로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전력망 교체 추진
-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폴란드 최초 원전 건설 프로젝트 돌입
 - 폴란드 북부 지역에 4,500MWe 규모의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지질 및 환경 분석을 완료하고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총 3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9년 완공 계획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프로젝트 구체화 및 추진 시행 중인 화력발전소와 전력망 현대화 공략
 - 변압기, 개폐기, 전선·케이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중심으로 진출전략 모색
 - 전반적인 전력망 개보수가 예상되어 소규모 송배전 기자재의 진출 유망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체와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 수주 확대
 - 현지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별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조사단 파견을 통해 프로젝트 조기 발굴
 - 중동부 유럽 에너지 분야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국영기업으로 이들이 발주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현지 적격 파트너를 발굴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
 - 프로젝트 수주 경험이 있는 중동부 유럽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이 제품을 개별 납품 시 EU 프로젝트 시장 내 레퍼런스 축적이 가능하고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기회 확대

나. 대규모 PPP 프로젝트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폴란드는 2014~2020 EU 기금 최대 수혜국으로 주요 EU 기금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 배정되었지만 지방정부의 기술력과 경험 부족으로 프로젝트 발주 미흡
 - 폴란드 내 다수의 고속도로, 철도, 항구, 내륙 수로 프로젝트가 2014~2020년 EU 기금의 지원대상으로 폴란드 정부 및 지방정부는 EU 기금 활용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
- 중동부 유럽 허브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다수
 - 쇼팽공항을 대체할 목적으로 바르샤바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Baranow 지역에 허브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폴란드는 2014~2020 EU 기금 최대 수혜국으로 주요 다수의 PPP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됨
 -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PPP 형태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폴란드 정부 및 발주처는 PPP 형태를 선호함
- 중동부 유럽 허브공항 건설계획 구체화
 - 쇼팽공항을 대체할 목적으로 바르샤바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Baranow 지역에 허브공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국내기업, 정부 등이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후 유망 프로젝트의 국내외 관계자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계획 수립
 - 개발된 프로젝트를 폴란드 정부에 역으로 제안하고 프로젝트 구체화 과정을 통해 맞춤형 프로젝트 공급
- 현지 기업과 R&D 기반 협력,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 마련
 - 프로젝트 수주 경험이 있는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접목 사회 인프라 구축사례 부각 및 CCTV, 모니터, LED 등 관련제품 공략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품목명 1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17/US\$백만)	908	대한수입액('17/US\$백만)	8.99
	선정사유	폴란드인들은 서유럽에 비해 비용에 관심이 많은 편이며, 최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뷰티산업이 크게 성장 중		
	시장동향	폴란드 화장품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8%의 증가율을 보이며 매년 꾸준히 성장		
	경쟁동향	1990년대부터 L'Oreal, Nivea, AVON 등 다국적 기업이 폴란드 현지에 투자 진출해 화장품을 생산하고 내수 및 수출을 하고 있음		
	진출방안	관련 전시회·박람회를 통해 거래선 발굴, 또는 온라인 마켓 벤더나 현지 디스트리뷰터와 거래를 통해 시장 진출 타진 가능		
품목명 2	HS Code	8503	수입관세율(%)	0
전력기자재	수입액('17/US\$백만)	308	대한수입액('17/US\$백만)	0.41
	선정사유	폴란드 전력 수요의 증가로 발전용량이 지속 확장될 전망, 발전소 시설 교체 등이 꾸준할 계획		
	시장동향	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히 조달 확대 중		
	경쟁동향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약 30% 규모이며, 중국·인도 등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빠름		
	진출방안	현지 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		
품목명 3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
의료기기	수입액('17/US\$백만)	1,011	대한수입액('17/US\$백만)	16.24
	선정사유	EU 기금을 활용한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의료기기 구입 등 확대		
	시장동향	폴란드 의료기기 시장은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이며, 2014~2019년 연평균 5% 성장률 기록 전망		
	경쟁동향	80% 이상이 수입제품이며, 주로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선호함		
	진출방안	현지 벤더를 통한 진입		
품목명 4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0
자동차부품	수입액('17/US\$백만)	7,605	대한수입액('17/US\$백만)	176.36
	선정사유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제조강국으로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따라 관련제품 수입 확대 예상		
	시장동향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수요 확대 추세		
	경쟁동향	수입 상위 10개국으로 EU 국가 및 중국 위치		
	진출방안	현지 법인 설립		
품목명 5	HS Code	9305	수입관세율(%)	0
무기부품	수입액('17/US\$백만)	0.20	대한수입액('17/US\$백만)	0.02
	선정사유	폴란드 정부의 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따라 해외 첨단 무기류 구입 확대		
	시장동향	폴란드 정부는 국방예산을 GDP의 2.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		
	경쟁동향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독일, 미국, 중국 등		
	진출방안	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장 진출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비즈니스아웃소싱 (BPO)	선정사유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서비스 산업이며 현지 수요 지속 증가
	시장동향	1,00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이며, 72%가 외국기업
	경쟁동향	미국 기업 25%, 영국·독일·프랑스 기업 각각 7% 시장점유율 차지
	진출방안	현지 법인 설립
발전소	선정사유	EU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원 다변화 등에 따라 전력생산 및 송배전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계획
	시장동향	화력발전소 현대화, 원자력발전소 설립 등 정부의 프로젝트 계획 구체화 중
	경쟁동향	발전설비 및 시스템 강국의 對정부 마케팅 시행 중
	진출방안	현지 적격 파트너를 발굴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조사단 파견을 통해 프로젝트 조기 발굴
지능형교통체계 (ITS)	선정사유	폴란드 지방정부들은 인프라 확장뿐 아니라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한 교통시스템 개발 추진 중
	시장동향	EU 기금 기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다수 계획
	경쟁동향	주로 자국기업이 관련 프로젝트 수주
	진출방안	폴란드 지자체, 현지 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방위 시스템	선정사유	정부의 국방예산 확대, 첨단 무기시스템 도입
	시장동향	국방예산 GDP의 2% 규모, 미군 영구주둔 추진 중
	경쟁동향	미국, 호주 등 방위 우호국들과 폴란드 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중
	진출방안	오랜 미군 협력 경험과 첨단 무기시스템 보유를 강조하여 정부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필요
물류	선정사유	폴란드 내 생산공장 설립 증가와 지리적 이점에 따라 물류 관련 시장 수요가 높음
	시장동향	도로운송 75%, 철도운송 14%, 해상운송 4% 비중
	경쟁동향	폴란드 철도기업 PKP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 보유
	진출방안	현지 법인 설립 또는 현지 기업 인수합병,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1.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 사업

□ 폴란드 소비재 온라인 유통망 진출 사업

○ 추진배경

- 최근 폴란드 경기호조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와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 시행,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따라 폴란드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소비 증가
- 한류와 K-beauty 등을 통한 한국 화장품 및 소비재에 대한 폴란드 수요 지속 증가 추세

○ 사업 개요

폴란드 대표 온라인몰에 한국 온라인 상품점을 개설하고, 폴란드 현지 벤더를 통해 온라인에 상품 등록→결제→기간 내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

- (시기 및 장소) 2018년 연중, 서울 및 바르샤바
- (규모)
 - (국내) 문구/완구, 화장품, 육아용품 등 수출 초보 및 유망기업 200개사
 - (바이어) Allegro, Ceneo 등 폴란드 주요 온라인 유통망 벤더·바이어 10개사
- (내용)
 - 폴란드 온라인 벤더 초청 온라인 시장 입점 설명회 개최(상반기, 서울 본사)
 - 벤더를 통한 온라인 한국 상품점 운영(연중, 바르샤바)

○ 예상성과

- 중동부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 소비재 국내기업에 수출 가능성에 대한 조기 시장 테스트 및 온라인을 통한 시장 조기진출 지원

2. 프로젝트 수주 지원 사업

□ 한·폴란드 PPP 프로젝트 플라자

○ 추진배경

- 주차장 현대화 사업, 도로 LED 조명 설치, 의료시설 현대화 등 중동부 유럽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익성이 높은 인프라 개선 분야 집중 공략

- PPP가 활성화되어 있는 폴란드 주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역으로 발주처에 제안하여 시장 진출 확대
- 사업 개요
 - (시기 및 장소): 2/4분기, 바르샤바
 - (규모) 50개사 내외
 - 한국: 대기업-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행사 참가
 - 폴란드: 바르샤바, 브로츠와프 등 주요 지방정부, 발주처 등
 - (내용) 주정부 프로젝트 계획 소개,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참가 방안 및 한-폴란드 업체 간 비즈니스 상담회
- 예상성과
 - 발주처와 PPP 프로젝트 신규 발굴(20건) 및 국내기업 프로젝트 수주(5건)

3. 항공우주 분야 시장 진출 지원 사업

□ 한-폴 항공우주 GP 사업 추진

- 추진배경
 - 폴란드는 Pratt&Whitney 등 미국 항공기업의 투자와 PGZ 산하 항공기업들의 높은 기술력과 완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 사슬(Supply chain)이 구축되어 있음
 - 우리 항공기업과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이 높고, 2018년 양국 항공 벨리 및 대학 간 MOU 체결 후속사업으로 실질 성과 창출
- 사업 개요
 - (시기 및 장소): 3/4분기, 폴란드 제슈프 지역 Aviation Valley
 - (규모)
 - 한국: 항공분야 국내기업 10개사 및 경상대학
 - 폴란드: Aviation Valley 산하 기업, 주요 항공 관련 기업 및 제슈프 공대
 - (내용) 양국 항공분야 기술 세미나 개최 및 맞춤형 B2B 상담회 개최
- 예상성과
 - 양국 간 항공 분야 기술협력 기회 제공 및 對폴란드 항공부품 수출 신규 창출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폴란드 지방선거	2018. 10. 21	임기 4년
EU 유럽의회 의원 선거	2019. 5. 23~26	임기 5년
폴란드 국회의원 선거	2019. 11	임기 4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2020. 4	임기 5년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2018. 12. 3~14	카토비체시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포즈난 모터쇼(Poznan Motor Show)	2019. 3. 28~31	폴란드 최대 모터쇼
뷰티 데이즈(Beauty Days)	2019년 하반기	폴란드 최대 뷰티전시회
중동부유럽 첨단기술 컨퍼런스(Impact CEE)	2019. 5. 21~22	미래지향산업 종합 컨퍼런스
제27회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19. 9. 3~6	유럽3대 방산전시회

담당자

바르샤바무역관 김재일
Tel +48-520-6233

직책 과장
Email jae-il@kotra.or.kr

2019 국별 진출전략

폴란드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